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0

▶ 11회 예고
반란을 진압한 빈두사라는 선왕 찬다라굽따의 동지인 까울띨리야가 병사했다는 비보에 통곡한다. 반란수괴를 문초한 결과 짜라나비슈누 장수마저 그의 손에 죽었다는 자백을 받고는 낙심한다. 그 사이 아쇼까가 탄생한다.



빈두사라가 두려운 다르마

빈두사라왕 군사는 탁실라 부근 산자락에서 머물며 반란군의 동태를 살폈다.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는 이른 새벽에 인더강으로 나가 빈두사라왕을 위해 기도했다. 이윽고 탁실라로 잠입해 들어갔던 정찰조 조장이 돌아와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했다. 정찰조 조장은 탁실라 출신으로 그곳 지리에 밝은 장수였다.

"대왕이시여, 반란군의 군사력은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이옵니다. 반란수괴는 탁실라의 왕이라도 된 듯 행세하고 있사옵니다. 매일 연회를 열고 술에 취해 협력하지 않은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 한 사람씩 죽이고 있사옵니다."

"선왕의 친구들은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살아 있을지 걱정이오."

선왕이란 빈두사라의 아버지 찬드라굽따였다. 찬드라굽따는 소년시절을 탁실라에서 성장하여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다. 찬드라굽따를 도운 대신 까우띨리아나 짜라나비슈누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자, 빠딸리뿌뜨라에서 모두 향수병에 걸려 고향인 탁실라로 돌아가고 말았다. 혹시라도 그들을 살해했다면 빈두사라는 반란수괴 일당을 몇 배로 보복할 작정이었다.

"지금 공격해도 되겠는가?"

"연회를 열기 전이니 이르옵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옵니다."

"제관의 생각은 어떻소?"

"대왕이시여, 지금은 해가 뜨는 신성한 시간이옵니다. 그러니 악마가 날뛰는 오후 늦은 시간이 적기일 것 같사옵니다."

칼라따까의 대답에 빈두사라는 공격시간을 정했다.

"제관의 의견을 따르겠소. 조장은 선봉장을 불러오시오. 이번 공격에는 우리 군사의 사기를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겠소. 우리 군사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소. 출발할 때는 사기충천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쳐 있소. 그러니 왕이 선봉에 서야 할 것 같소."

"친위대인 코끼리 부대가 선봉에 나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코끼리 부대로 성 안을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소."

칼라따까는 피의 보복이 시작되는가 싶어 소름이 끼쳤다. 가루로 만들겠다는 것은 성 안의 성민들을 모두 몰살하고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응징의 표현이었다. 빈두사라왕의 보복전은 이전에도 잔인했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산목숨은 남아나지 못했다. 어린 아이, 노인, 여자할 것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다. 20대 중반의 선봉장이 왕의 군막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대왕이시여, 부르셨사옵니까?"

"여기 산악까지 행군하느라 수고 많았소. 큰 사고 없이 이곳에 당도한 것은 선봉장의 공이 크오. 오늘 오후 늦은 시각에 탁실라를 공격할 것이오."

"명령만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선봉장으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두에서 돌진하겠사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만도 선봉장의 공이 크니 이번에는 내가 선봉에 나서겠소."

칼라따까 옆에 있던 선봉장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대왕께서 다치시기라도 한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장이 선봉에 서야 하옵니다."

"군사들은 크게 지쳐 있소. 이럴 때는 왕이 공격의 선봉에 서야만 사기가 오르는 법이오."

빈두사라가 손을 크게 저으며 말하자 선봉장은 다시 무릎걸음으로 칼라따까 옆으로 돌아갔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코끼리 부대가 성 안에 먼저 입성해 진압할 것이니 선봉장은 뒤따라 들어와 도망치는 반란군 일당을 소탕하시오. 샅샅이 수색하여 반드시 반란수괴를 생포하시오. 수괴의 칼도 찾아오시오. 큰 상을 내리겠소. 나는 수괴의 칼로 반란수괴와 일당을 한 사람씩 목을 쳐 죽일 것이오. 피는 피로 다스려야 한다고 일찍이 선왕의 대신 까우띨리야로부터 배웠소."



짜나꺄 또는 비슈누굽따로 불리었던 까우띨리야는 선왕 찬드라굽따의 대신이었다. 사실 그는 찬드라굽따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 마우리아족의 삡팔라바나국에서 탁실라로 도망쳐 와서 목동 우두머리가 된 찬드라굽따를 발탁하여 제왕학을 가르친 브라흐민이기 때문이었다. 천민 출신의 마하빠드마가 세운 난다왕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당시 동서양문화의 중심지였던 탁실라에서 여러 학문을 수학한 대학자였다. 난다왕국의 신하들에게 멸시를 받기까지 했던 그는 통치술과 의술, 천문학과 점성술에 달통한 대학자로서 목동들의 우두머리 찬드라굽따를 앞세워 난다왕조의 전복을 꿈꾼 이상가이기도 했다.

찬드라굽따와 의기투합한 또 한 명의 인물은 장수 짜라나비슈누였다. 청년 찬드라굽따가 탁실라를 점령한 마케도니아 대왕인 알렉산더 진영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데 찬드라굽따는 알렉산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하옥됐다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다. 알렉산더대왕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다. 까우띨리야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예언한 바를 알렉산더 신하들에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더는 수년 안에 탁실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병사하리라는 예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이다. 이는 알렉산더가 거느린 동방원정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까우띨리야의 은밀한 심리전이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찬드라굽따를 구출해준 인물이 바로 장수 짜라나비슈누였다. 그 역시도 알렉산더의 부하가 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탁실라의 해방을 꿈꾸었던 청년 장수였다. 그는 한밤중에 옥문지기를 단칼에 죽이고 찬드라굽따를 구출한 공로에다 난다왕국을 무너뜨릴 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소국의 왕들을 설득시킨 인물이었다. 그래서 소국의 왕들은 그를 덕행으로 찬드라굽따의 대업(大業)을 도운 인물이라 하여 짜라나비슈누라고 불렀다.

아무튼 탁실라 출신의 까우띨리야는 브라흐민이었고, 삡팔라바나국에서 온 찬드라굽따는 끄샤뜨리야였다. 두 사람은 천민 계급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어 바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대국인 마가다왕국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천민이 세운 난다왕국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난다왕국을 세운 수드라 출신의 천민 마하빠드마의 부하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빈두사라 친위대 코끼리 부대는 탁실라 성으로 거침없이 돌진했다. 기마부대를 앞세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군을 여지없이 격퇴시켰던 코끼리 부대의 공격이었다. 바위덩어리가 구르듯 거대한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곳은 쑥대밭이 되었다.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반란군의 장창(長槍)은 코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장창을 든 군사들은 코끼리에게 밟히어 배가 터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다. 코끼리를 탄 빈두사라는 선두에서 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반란자들을 처단하라!"

친위대를 뒤따르는 빈두사라의 군사는 성 안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 숨어 있는 성민들을 불태워 죽였다. 손을 들고 나오는 성민들도 가차 없이 살해했다. 살육전은 초승달이 뜰 무렵까지 극에 달했다. 탁실라 거리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빈두사라는 자신의 존재를 잔인함으로 증명하듯 군사들을 지휘했다. 반란수괴가 벌이고 있던 연회장은 피의 난장판으로 바뀌었다.

"시신의 목을 잘라 광장에 쌓아두라. 탁실라의 귀신도 두려움에 떨게 하라."

초승달이 지고 나서야 빈두사라는 살육을 멈추었다. 선봉장이 빈두사라에게 보고했다.

"대왕이시여, 반란수괴를 아직 생포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길에 군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것이옵니다."

"반란수괴를 잡을 때까지 나는 탁실라의 반란자들을 죽일 것이니라. 날이 샐 때까지 더욱 철저히 수색해서 체포하라."

"예, 명령대로 하겠사옵니다."

자정 무렵이었다. 다르마는 왕비군막에서 피냄새를 풍기는 빈두사라를 맞이했다. 빈두사라의 갑옷과 투구는 온통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다르마는 두려움에 떨었다. 빈두사라가 항아리 물에 손을 씻고는 말했다.

"반란수괴를 생포했어야 단잠을 잘 텐데 몹시 아쉽소."

빈두사라가 차고 있는 칼집도 피가 번져 숫제 붉었다. 빈두사라가 갑자기 다르마의 볼록한 배를 만지며 말했다.

"왕자는 잘 있소?"

"왕자가 놀란 것 같아요."

"다르마가 놀란 것 아니오?"

"왕자가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놀라면 그렇답니다."

빈두사라는 꼬무락거리는 생명이 아니라 단단한 나무토막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빈두사라가 손을 떼면서 말했다.

"왕자가 이럴 때도 있소?"

"어제 보았던 대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허허허."

빈두사라는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왕비군막을 나갔다. 나가면서 한 마디 했다.

"내일부터는 탁실라로 들어가니 고생을 덜 할 것이오."

다르마는 한 마디 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한 마디는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손에 피를 묻히어 왕자가 더 이상 놀라지 않게 해줘요.'

다르마는 탁실라로 따라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피 묻은 갑옷을 입은 빈두사라의 잔영이 사라지지 않아 밤새 진저리를 쳤다. 이윽고 다르마는 침상에 앉아서 뱃속의 왕자가 평화로운 빠딸리뿌뜨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피로 얼룩진 반란의 땅에서 태어난다면 왕자에게도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기도를 방해했다. 락슈미띳사가 왕비군막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왕자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딱딱한 나무토막 같았어."

"지금은요?"

"발로 나를 툭툭 차고 그래. 락슈미띳사를 보니 기분이 더 좋은가 봐."

"경계병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해요."

"대왕님이 말씀하셨어. 오늘은 탁실라로 들어간대. 그러니 궁녀들에게 전해줘. 가져온 물품들을 잘 챙기라고."

그때 군수부대 장수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동한다, 탁실라 성으로!"

군수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다. 코끼리가 이끄는 수레 등을 이용해 군수물자를 나르는 부대였다. 후방을 방어하면서 군수물자를 전투부대에 공급하는 것이 군수부대의 주요임무였다. 군수부대 군사가 이동하려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왕비가 탄 코끼리를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시친위대가 먼저 움직였다. 임시친위대는 허리에 긴 칼을 두 개나 찬 군수부대 정예 군사들이었다. 날씨는 빠딸리뿌뜨라와 흡사했다. 산등성이 곳곳에 피어난 분홍빛깔의 살구꽃이 더 없이 화사했다. 소와 양들은 파릇하게 막 돋아난 풀들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다. 다르마는 가마 창을 활짝 열고 이른 봄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탁실라에 도착하자 목가적인 풍경은 살벌하게 돌변했다. 시신이 타는 누린내와 불타는 건물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직도 반란군을 색출하는 작전은 덜 끝난 것 같았다. 빈두사라가 묵는 행궁만 온전할 뿐 대부분의 건물은 지진이 난 듯 불타버렸거나 무너져 있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를 보고 또 놀랐다. 빈두사라의 두 손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